



유채밭 사잇길로

18일 나주 영산강변을 찾은 학생들이 노랗게 만개한 유채꽃밭 사잇길을 거닐고 있다. '영산포 홍어축제'는 20~22일 3일간 영산포 홍어의 거리 등지에서 열린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8회 영산포 홍어축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나주시 영산포 홍어의 거리와 둔치 유채밭 일원에서 열린다.

영산포 홍어상인들이 주최하는 홍어축제는 지난해 축제 기간동안 15만명이 방문하는 등 해를 거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축제 첫날인 20일에는 식전 개막 공연에 이어 품바공연, 홍어 깜짝

내일부터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영산강변 유채밭 일원 3일간 품바공연 등 다채

경매, 영산포 선창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21일에는 나도 가수다·홍어 팔씨름 대회·영산포 선창 콘서트가 펼쳐지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홍어 예쁘게 썰기 대회와

홍어 시식왕 선발대회·홍어 연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등대앞 선착장에서는 왕건호(96t급)를 타고 영산강을 오르내릴 수 있다.

양치권 추진위원장은 “축제기간 동안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마음껏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불거리, 먹을거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는 30여개 홍어 전문 업소가 성업중이며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영암군 직원 편법채용·예산낭비

전남도 감사, 부당 행정행위 82건 적발

편법채용과 예산 낭비 등 영암군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기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편법 계약과 부정 행정행위 등 일반 행정분야와 재무행정 분야, 기술행정 분야 등에서 모두 82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20억78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재시공 처분했다.

감사결과 군은 무기계약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거나 유사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인을 우선 채용해야함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 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 소속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A씨 등 5명을 자체 선정 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영보 등 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4억4189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체결했으나, 토지 매입 난항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행정력은 물론 3억621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과·징수하면서 용도변경(신·증축·용도변경)한 4건의 건축물에 대해 전체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해 적용해야 함에도 적정부과액 1억1766만원보다 4848만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업대상자 선정시 모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 5명 중 3명이 가족이어서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자부담금을 제외한 국비 6억7000만원, 지방비 5억원 등 11억7000원 상당을 지원,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지난 2010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93개소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교육청 지원금 22억71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과 별도로 14억3100만원의 군비를 편성, 집행했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47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7억7700만원은 회수하고, 1억900만원은 추징, 11억7800만원은 감액했다.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군은 지난 2010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93개소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교육청 지원금 22억71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과 별도로 14억3100만원의 군비를 편성, 집행했다.

/중부취재본부=문명선·이상휴기자 lsh@



임진왜란 ‘해전 영웅’ 나대용 장군 서거 400주년

동상 제막 등 업적 재조명 나서

임진왜란 당시 수군(水軍)의 장군이자 거북선 건조 책임자인 체암 나대용(1556~1612) 장군 서거 400주년을 맞아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사)체암(遞庵) 나대용 장군 기

념사업회(회장 나무석)는 21일 나주 문평면 오희리 오희마을에 자리한 소총사에서 학계와 정·재계 인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군 동상(사진) 제막식과 추모식을 갖는다.

이어 문평면 오희동 회관에서 학술대회와 거북선 시원지인 방죽골을 답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임진왜란과 나대용 장군의 활약(전남대 이상식 교수) ▲나대용 장군과 거북선, 나대용함(해군사관학교 강정호 중령)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한국학 호남진흥재단 상임 부이사장) 등 주제논문이 발표된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여수 거문도 참다랑어 양식 청신호

남서해수산업, 월동사육 성공 종묘생산 기반 마련

여수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도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해 양식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국립수산물학원 남서해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여수시 거문도 해역에서 참다랑어 월동사육에 성공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산물학원 남서해수산업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거문도에서 참다랑어 양식시험을 시작해 본격적인 양식에 접어들었다.

남해안 거문도는 수온조건이 양호하고, 적조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로 참다랑어양식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학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 정책연구사업으로 참다랑어 양식기술개발에 착수해 ▲여수 거문도 ▲통영 옥지도 ▲제주도에서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개발 및 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서해수산업연구소 황형규 박사는 “거문도 해역에서 참다랑어 양식이 활성화 될 경우 거문도 지역을 참다랑어 양식단지로 조성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어민과 사육시험을 통해 인공종묘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임민택·박성태기자 mihang@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농어촌공사 올해도 6억들여 194가구 개보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농·어촌 저소득층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194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펼친다.

올해 선정된 전국 194가구 중

20%인 39가구가 전남지역으로 총 1억23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지역분부는 이달말부터 9월까지 18개 지사와 함께 지난해(27가)보다 31% 늘어난 39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은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낡은 집을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다층동지 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행운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어촌 노후주택 수리는 어려운 농가의 주거환경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여 직원들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봉사활동”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국립목포대학교

광주일보
SINCE 1952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뿐입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http://sign.mokpo.ac.kr>

광주·전남 유일 '잘 가르치는 대학' '창업선도대학' 선정

☞ 의과대학설립 홍보CF

☞ 모바일 서명운동 참여하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ACE 국립목포대학교